

가마야 갯도와 그 주변

가마야 갯도는 이와미 은광 역사상 최고의 성공 스토리 중 하나가 탄생한 곳입니다. 1602년 야스하라 덴베에라는 이름의 갯부가 이 갯도를 굴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풍부한 은 광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가마야에서는 수년 전 은광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손에 넣은 에도(현재의 도쿄)의 도쿠가와 막부에 13.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헌상했습니다. 이 엄청난 헌상품을 바친 야스하라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를 알현할 수 있는 허가를 얻고 칭호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도후쿠(귀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장식용 상의)와 부채를 하사받았습니다. 이 도후쿠는 야스하라가 은 광맥을 발견하기 전에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지는 세이스이지 절에 기증되었다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지금은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와미 은광 세계유산센터에는 이 도후쿠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마야 갯도 근처에서는 1600년대 초기의 채굴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은 광맥은 지표면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광부들은 장소에 따라 갯도를 사용하지 않고 언덕의 경사면을 직접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지면을 평평하게 고르고 건물을 지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절벽을 깎은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 빗물이 모이도록 만든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광석을 씻어내어 은을 포함한 작은 조각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유구는 이곳에서 발견된 은 채련 부산물과 함께 야스하라 덴베에가 살던 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마지막 갯도군이 만들어진 메이지 시대(1868~1912)까지 가마야 갯도를 중심으로 한 계곡 양쪽에서 대규모의 채굴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